

# 정리노트

## 1 융합수업

---

- 활동위주의 융합을 자칫 잘못하다가는 목표도달이나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에 방해가 되기도 한다. 각 교과목의 성취 기준을 면밀히 살핀 후 목표도달에 용이하거나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섰을 때 융합수업 설계를 해야 한다.
- 문학과 미술이라는 다소 낯선 결합에서 오는 혼란을 겪어야 했지만 사고의 유연성이라는 측면과 작품을 보는 심미안적 시선을 가지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 시도는 우리 수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.

# 정리노트

## 2 질문으로 연결하기

---

- 질문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고와 사고를 연결 지으며 질문은 또 다른 질문으로 연결된다. 또한 작품과 작품, 텍스트와 그것을 읽는 대상, 작품과 그것을 보는 대상 역시 질문으로 연결된다.
- 학생들의 질문으로 시작되어서 교사의 사고와 사고를 연결하는 질문들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학생들은 인물의 마음을 알게 되고 자신의 경험도 함께 이야기하면서 작품을 제대로 받아들이게 되어 느낌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도 다양해진다.

# 정리노트

## 3 새로운 이야기 만들기

---

- 융합수업을 했던지 주제통합 없이 단위 차시를 가지고 수업을 했던지 간에 수업을 마친 학생들은 자기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가져야 한다.
- 교사는 학생들이 텍스트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학습 분위기를 허용적으로 유지할 뿐만 아니라, 학습목표를 근간으로 학생들의 학습내용과 방법을 계획할 때 자신을 표현하는 것으로 계획함으로써 학생들의 자기표현 욕구를 충족시켜주어야 한다.
- 문학적 수용과 반응의 수준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자기 표현의 욕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면서 느끼는 정서적 감동으로 스스로 차유함을 얻는 것은 인간 누구나 바라는 일일 것이다.